

영어수업에서 기독교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 시도: 공립학교 기독교영어교사 사례 연구

김영숙*
이지연**

논문초록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영어교사들은 비록 학교 내에서 종교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어수업과 학생지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과 학문을 통합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과 소명이 있다. 최근 영어교육 분야에서도 신앙과 영어교수의 연관성이나 통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이 공립학교 영어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실현되는지에 대한 현장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독교영어교사들이 신앙과 가르침을 영어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통합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시도하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기독교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기독교대학과 학자들의 다양한 접근 모델과 영어교육 전공 분야에서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의 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공립학교에 임용되어 가르치는 중학교 교사 2명과 고등학교 교사 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면담 자료를 코딩하여 질적 자료 분석방식에 따라 발견되는 양상들을 유형화하였고, 이를 통합 유형에 대한 모델들을 적용하여 통합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독교영어교사들은 삶 전체에서 기독교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기반한 태도적 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의 역할을 선교사나 학생 양육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영어수업운영 및 수업활동 구성, 학습자료의 활용 및 선택, 평가 등 수업 전반에 있어서 통합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며, 이러한 통합을 위해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경건훈련, 영성훈련 프로그램 및 기독교사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자기반성을 통한 전문성 계발 등의 방법들을 통해 기독교영어교사로서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례 연구는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영어교사들이 수업 내 통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기독교영어교사 양성과정에서 요구되는 신앙 통합을 위한 훈련내용을 계획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 기독교영어교사, 영어수업

* 제1저자, 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 공동저자, 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2015년 7월 31일 접수, 10월 19일 최종수정, 11월 5일 게재확정

I. 서론

기독교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학교 현장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학교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공립학교에서 교사의 기독교 신념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학교 내에서 종교적 색채를 띠는 활동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그들의 진리의 가르침과 온전한 신앙 인격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이 있다. 이런 점에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과 인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기독교사만이 누릴 수 있는 숭고하고도 책임감 있는 소명이요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독교사가 공립학교에서 진정한 진리를 제시할 기회를 박탈당한 현실은 기독교인들에게 학원선교의 한계와 장애물 극복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독교사들의 문제를 에들린(Edlin, 2004: 319-322)은 구약성경의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의 이야기(열왕기하 5:1-9)에서 발견되는 원리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그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엘리사를 통해 나병을 고침 받은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방인인 왕과 거짓 신을 섬겨야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대해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에게 그가 일하던 곳으로 평안히 가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느부갓네살 밑에서 일한 다니엘이나 바로 밑에서 총리의 소임을 다했던 요셉처럼 비록 이방인 왕들을 위해 일할지라도 그들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만약 공립학교가 기독교사가 일하도록 부르신 곳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평강과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또한 매우 혁신적이며 도전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사는 비록 학원선교의 한계와 어려움은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다양한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교과영역의 가르침을 통해 신앙과 교수의 통합을 모색하고, 복음전도자로서 학생과 동료 간에 신뢰 구축을 통한 전도기회를 모색하며, 교육활동 개혁자로서 학교현장에서의 정의와 진리를 실천해야할 의무가 있다.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세계관은 주일 교회생활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각자의 직업, 학문적 영역 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

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께 영광돌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고후 10:5)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학문과 가르침 등 모든 영역에서 통합되어야 함을 말한다.

가르침과 학문의 통합은 기존 학문에 신앙을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의 빛으로 그 학문을 반성하고 구속적으로 회복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내적 개혁”이라 불렀는데,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학문 세계에서의 왜곡을 바로 잡아 회복하거나 “재창조”해야 할 일이 기독교인들의 소명이자 사명이라 하겠다(신국원, 2013: 201). 이러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해서는 기독교대학이나 기독교학교 중심으로 통합의 개념과 통합의 다양한 모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Burton and Nwosu, 2003; Holmes, 1987). 영어교육 분야에서도 최근 신앙과 영어교수의 연관성이나 통합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발표되기 시작하였다(Johnston, 2003; Smith, 2000; Wong, Kristiansson, and Dörnyei, 2013). 하지만 이러한 통합이 영어교육의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실현되는지 이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독교영어교사들이 가르침의 현장에서 어떻게 본인의 기독교 정체성을 드러내고 신앙과 가르침을 통합하고자 시도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는 기독교영어교사들의 신앙 통합 및 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영어수업운영에 있어서 신앙과의 통합 양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기독교영어교사들이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시도하는지 이다. 본 연구는 국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영어교사들의 신앙과 통합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시도들을 사례연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질적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제 영어교실현장에서는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이 어떤 통합의 양상과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통합 모델에 비추어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과 교육현장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기독교 영어교사 양성과정에서 신앙 통합을 위한 훈련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II. 기독교 신앙과 영어교육의 통합

1. 기독교 신앙과 학문의 통합 모델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성경적 진리에 기초하여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기독교대학 연합체인 CCCU(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www.cccu.org)는 기독교대학들의 사명과 정체성을 정의함에 있어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기독교대학에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분명하게 일치되는 견해는 없다. 기독교대학의 특성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홀즈(Holmes, 1987)는 이 통합을 네 가지 관점, 즉 태도적, 윤리적, 근본적, 그리고 세계관적 접근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태도적(attitudinal) 통합은 통합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교사와 학생이 기독교 학습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배어있는 분위기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윤리적(ethical) 통합은 각 학문연구와 관련하여 내재적인 가치를 분석하고 그 분야에 적합한 기독교적 가치판단과 사고력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 셋째, 근본적(foundational) 통합은 모든 학문이 역사적, 철학적, 그리고 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세워졌다고 보고 신학적·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전공지식을 연결하는 접근이다. 마지막으로 세계관적(worldview) 통합은 이 세상과 삶에 대한 이해를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기독교세계관으로 보고 신앙과 삶, 학문, 문화 등 모두를 총체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개념적 정의나 실증적인 연구를 통한 통합의 방법론적 접근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모두 통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통합의 필요성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신앙 그 자체에 뿌리를 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헤스커(Hasker, 1992: 234)가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듯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lordship)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헤스커(Hasker, 1992: 234)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기독교 신앙과 인간 지식, 특히 신앙과 다양한 학문 사이에 존재하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계를 밝히고 이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적 과제”라고 기술하고 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는 기독교대학에서 통합의 속성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교수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 개개인의 기독교적인 삶을 더 고양시켜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 . . 통합은 다양한 학문들의 영적인 진실을 보여주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통합은 더군다나 기독교대학의 기독교적 특성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대학을 바람직한 기독교 공동체로 전환시키거나 교수와 학생을 이상적인 기독교인들로 만들기 위한 ‘긴급 처방책’도 아니다(Hasker, 1992: 235-236).

신앙과 학문의 내적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로 외국의 기독교대학 중심으로 연구가 시도되어 왔고, 많은 기독교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신앙과 학문 통합을 돕는 교수개발이나 커리큘럼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통합의 개념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그 한 예를 들면, 미국의 레전트 대학(www.regent.edu)의 경우 ‘신앙과 학문 통합 위원회’를 두고 학부 수업에서 통합의 접근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대학 49명의 교수들이 수업에서 적용한 통합 방법들은 9개의 모델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다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중 신앙 나눔 접근은 흠즈가 말한 ‘태도적 통합’에 가깝고, 주제나 의미를 분석하는 어휘적 접근은 ‘윤리적 통합’에, 그리고 기독교적 원리를 전제하고 전공내용에 적용하는 기관적 접근은 ‘근본적 통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이은실, 2010: 127). 이러한 접근들은 흠즈가 말한 네 가지 유형의 통합이 실제 대학의 수업현장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표1> 레전트 대학에서 제시한 신앙 통합을 위한 접근 유형들 (Scarlato and Kohm, 1999)

유형	내용
학생주도 접근 (Student Directed Model)	학생들 스스로 통합을 시도(단, 성경 진리의 절대성과 지식에 대한 학생들의 기본 지식이 갖추어져야 함)
즉흥적 접근 (Spontaneous Model)	교수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성품이나 사용하는 교재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경우
신앙 나눔 접근 (Devotional Model)	수업 도입부분에 강의 주제와 연관된 성경 구절과 교수의 신앙경험 등의 나눔을 통한 통합
교재적 접근 (Textbook Model)	기독교적 또는 일반적인 교재나 성경 자체를 사용하여 통합 시도

유형	내용
기독교 전문가 접근 (Christian Professional Model)	교수 스스로가 시도한 통합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글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통합을 시도하도록 모델링
경험적 접근 (Experiential Model)	수업의 특정 주제를 선택하여 학생들 간에 상호작용과 협력 활동을 함으로써 신앙과 행동이 일관성 있도록 경험중심의 통합 유도
어휘적 접근 (Lexical Model)	성경의 단어나 주제의 의미 분석을 통한 통합 시도
기관적 접근 (Institutes Model)	성경의 권위와 계시, 그리고 핵심적인 원리를 강조하면서 기독교적 원리를 수업 내용과 연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
도덕적 접근 (Moral Formation Model)	기독교적 시학과 가치 형성을 목표로 전문적인 감각과 성경 지식의 바탕위에 성령으로 인격이 다듬어지도록 수업을 유도

노수(Nwosu, 1999)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개념이 실제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접근이 수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의 세 개 기독교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문적으로 지적인 접근 방법(intellectual),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모든 양식에서 신앙이 드러나도록 하는 방법(lifestyle),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계승하고 제자삼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제자화(discipleship) 방법이다. 버튼과 노수(Burton and Nwosu, 2003)는 흠즈의 네 가지 접근 유형이 실제 기독교대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합의 유형들임을 인정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했는데 이는 교수법적(pedagogical) 통합이다. 이들은 교육과정과 교수법 영역에서 교수자들이 수업을 계획하고 교수활동이나 과제, 평가 등을 고안할 때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변혁적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통합을 정의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관심이 있는 교사라면 그가 가르치는 과목을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과목의 주제나 이슈를 통해 그 교과내용이 기독교 신앙, 신념이나 가치관과 어떻게 명백하게 연관성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교사는 이런 연관성을 수업 개요, 강의, 학생 과제물, 교실에서의 질문과 토의, 시험문제나 기타 학습활동에 핵심적으로 드러내야 한다(Burton and Nwosu, 2003: 106).

이는 이전의 주로 교수자들의 입장에서의 통합보다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신앙과 학

습의 내적 통합이 일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수·학습활동을 설계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지식이나 가치관, 삶의 목적 등에 대해 성경에 기초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끌어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이은실(2010)은 대학생들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학습과정이나 활동이 그러한 이해를 돕고 학생들은 이러한 통합적 활동을 통해 얻는 결과를 무엇이라고 인식하는지 학습자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기독교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앙과 학문을 통합한 수업사례 에세이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통합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가령, 성경의 진리와 학문의 진리를 동일하게 인정하고 성경의 원리를 전공 분야에 적용하는 접근, 혹은 기독교세계관으로 교과목의 지식을 재조명하는 접근, 또는 전공지식의 원리나 이론의 기본이 되는 전제를 비판적 사고로 분석하는 접근 등이다. 학생들이 인식한 통합에 도움이 되는 수업의 요소로는 통합을 시도한 사례 제시나 모델링, 질의응답과 소그룹 토론, 자기주도적 사고 독려 등이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이뤄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얻은 유익한 결과들로는 사고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학문분야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습관이나 태도 함양,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점검 등이다. 이은실(2010)은 연구에서 학생들이 통합 수업을 통해 경험한 기독교대학의 교육적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효과적인 교수역량 강화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2. 영어교육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

외국어교육에서 기독교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이미 17세기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코메니우스(Comenius)에 의해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라틴어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언어는 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고 계발되어야 할 도구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언어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신앙과 언어교육에 대한 논의는 기독교대학이나 일부 선교단체 등에 국한되어 왔고, TESOL(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과 같은 영어 교육 전문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추진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국제 교류와 기독교 선교로 인해 영어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과 힘을 갖게 되고 그 결과로 야기된 언어제국주의(linguistic imperialism)에 반기를 든 학자들(가령, Robert Phillipson,

Julian Edge 등)과 복음주의 진영의 영어교육 학자들(가령, Earl Stevick, Tom Scovel 등)간의 흥미로운 토론들이 학회에서 연이어 시도되기도 했다. 또한 미국 칼빈대학교(Calvin College)의 데이빗 스미스(David Smith)와 바바라 카빌(Barbara Carvill)(2000)이 출간한 *The Gift of the Stranger*와 돈 스노우(Don Snow, 2001)의 *English Teaching as Christian Mission*이라는 책은 영어교육의 기독교적 소명을 환기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이 외국어 수업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기독교 가치관과 복음이 어떻게 교수법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발표되었다(Smith, 2000, 2008; Smith and Carvill, 2000; Smith, Sullivan, and Shortt, 2007; Wong et al., 2013).

외국어교육과 기독교 신앙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해온 스미스는 그의 책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외국어교육의 근본 목적이 성경에 근거한 이웃사랑에서 비롯되며, 이는 외국어 사용을 통해 축복된 이방인(blessed strangers)이 되는 것과 이방인에 대한 환대(hospitality to strangers)로 실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Smith and Carvill, 2000). 그는 또한 외국어 수업이 단지 학생들이 외국어 기술과 의사소통을 익히고 연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도덕적,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언어습득의 생태계(ecology of language acquisition)로 발전될 때 진정한 신앙과 학습의 통합이 일어난다고 언급했다(Smith, 2008: 4). 다시 말하면, 외국어 수업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언어 기술의 습득 대상으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온전한 인격 형성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말하는데, 이는 앞서 레전트 대학에서 제시한 신앙 통합의 유형 중 도덕적 접근(Moral Formation Model)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영어교육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그 중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김(Kim, 2006)은 한국의 영어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신앙과 가르침이 통합되고 있는지 기독교인 현장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김은 기독교영어교사들의 정체성 인식 정도, 신앙과 교수의 통합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예, 그리고 신앙과 교수의 통합을 유도하는 다양한 교수활동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원어민도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기독교영어교사들은 기독교학교에서 가르치든 일반학교에서 가르치든 그들의 기독교 정체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이를 표명하였으며 실

제 수업에서 통합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언급한 통합에 대한 정의를 분류하면 네 가지로 나타났는데, 이는 삶에서 신앙의 실천, 교과목과 연관성 맺기,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통합, 그리고 근본적인 접근이었다. 이 중 많은 기독교 영어교사들이 통합을 교과목 내용의 재구성이나 기독교세계관적 접목보다는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앙을 개인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 교사의 관심어린 태도와 긍정적인 교실 분위기 조성 등을 교수와 신앙의 통합을 위한 가장 유용한 전략으로 인식했는데, 이는 흠즈가 언급한 통합의 시작점인 태도적 통합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 영어 교수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통합 시도의 예들을 살펴보면, 문화간 예민성과 인식도 향상을 위해 노력, 텍스트 읽기 활동이나 해석시 텍스트 이면에 깔린 기독교 가치관이나 신념 제공, 추수감사절과 같은 기독교에서 유래된 풍습에 대해 다룰 때 문화관련 활동이나 어휘 제시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레서드 클라우스톤(Lessard-Clouston, 2013)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두 곳의 기독교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연구하였다. 앞의 김(Kim, 2006)의 연구와 유사하게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에 대한 인식정도, 교수방법의 구체적인 실행, 통합의 유용성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기도, 교재활용, 기독교 주제 관련된 읽기, 비판적 사고 기르기, 긍정적인 태도, 삶의 경험 나누기 등의 방법을 통합 시도의 예로 들었다. 이들은 또한 신앙 통합이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신앙 성찰이나 학습동기 부여, 학생과 교사간의 친밀한 관계형성 등에서 유익한 점이 많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교사들은 영어수업이 교과와 내용(content)보다 대부분 언어기능 개발(skill-building)에 초점이 맞춰있는 점에 비추어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은 어려운 과제이며 그 개념이나 방법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독교영어교사들이 어떻게 본인의 기독교 정체성을 드러내고 기독교 신앙과 영어교수활동을 통합하고자 시도하는지 탐구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는 그 연구 대상으로 기독교대학의 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국가 중등영어교사임용고사에 합격하여 공립학교에 발령받아 가르치는 영어교사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문제의 성격상 신앙적 가치관과 관련한 영어교수 경험 사례들과 양상을 더 심도있게 기술하고자 개인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를 위해 사전에 동의한 이들 중에서 선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동일한 기독교대학의 교사양성과정을 졸업한 교사로서, 서울 경기 지역에 근무하되 성별, 근무 경력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중학교 교사 2인과 고등학교 교사 2인으로 되도록 구성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네 명의 교사들의 프로필을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으며 각 교사들에 대해 차례로 기술하고자 한다.

<표2> 연구 참여자(기독교영어교사)의 기본 정보

교사	나이	성별	근무 경력	근무지 및 학교	임용전 교수경력 및 교육경력
교사 A	31세	남	3년	경기도/고등학교	방과후 시간강사 경험 많음. 미국 대학원 재학1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사과정 이수
교사 B	38세	남	6년	서울/중학교	기간제 교사 1년 이상. 영어교육학 석사과정 이수
교사 C	34세	여	12년	경기도/고등학교	교수경력 없음. 영어교육학 석사과정 이수
교사 D	28세	여	3년	서울/중학교	몇 개월간 학원강사 및 방과후 프로그램 시간강사 경험 있음.

(1) 교사 A

교사 A는 중등영어교사임용고사에 합격한 후 경기도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었으며, 임용 전부터 다양한 청소년수련관에서의 강의, 개인지도, 시간

강사 등의 형태로 중등학생들 대상으로 수년간 교과지도를 해온 경험이 있었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사과정을 이수하였고 미국 대학원에서의 재학 1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2) 교사 B

교사 B는 중등영어교사임용고사에 합격한 후 6년째 서울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해오고 있다. 교사 임용 전에도 1년 3개월 동안 기간제 교사의 경력이 있으며, 교사로 임용된 후 서울시 파견교사시험에 합격하여 영어교육분야 석사과정을 이수하였고 신앙활동으로서 CCC단체에서 활동한 바 있다.

(3) 교사 C

교사 C는 중등영어교사임용고사에 합격한 후 교사 경력 13년째이며, 현재 경기도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해오고 있다. 대학 졸업 직후 교사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임용 전 티칭 경력은 없으며, 임용 후 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였다. 그 외에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해 교사연수를 지속적으로 이수해왔다.

(4) 교사 D

교사 D는 중등영어교사임용고사에 합격한 후 서울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3년째 교사로 근무 중이며, 임용 전에는 사설학원 및 공립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시간강사로 몇 달간 가르친 경험이 있다. 현재 교회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천 리더십 훈련을 6개월째 받고 있다.

2. 연구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기독교영어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영어수업에서의 신앙과 가르침과의 통합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4명의 교사들을 선정하여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에 걸쳐 연구자 2명이 각 교사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면담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질문내용은 개인 정보, 교사지원 동기 및 교직원관련 질문, 기독교 신앙과 교실수업 관련 질문 등이었다(부록 참조). 면담시간 자체는 길지 않았지만 반구조화된 면담법을 실시함으로써 신앙과 수업의 통합에 대한 이들의 인식 및 통합 양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면담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였다.

각 교사와의 면담 내용은 음성 녹음하여 전사(transcribe)하였으며, 보그단(Bogdan)과 비클렌(Biklen)의 질적 자료 분석 방식(2003)에 따라 자료를 코딩하였고,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발견되는 양상들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연구 참여자들에게 분석 내용이 정확한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member checking)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형화한 양상을 기존의 신앙과 학문 간 통합 모델에 비추어 통합의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위해 홈즈의 모델과 레전트 대학의 신앙과 학문 통합위원회(www.regent.edu)에서 제시한 모델을 적용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연구결과 논의에서 필요한 부분에 직접 발췌 또는 요약 등의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 및 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영어교사들이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교사의 역할에 있어서 신앙과 통합하여 인식하고 있는 바를 홈즈(Holmes, 1987)의 신앙과 학문 통합 모델에 비추어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에 대해서 이들 교사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교사 A), 기독교적인 토대 위에서 내적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영어라는 학습 대상을 사랑하게 만들며 삶 전체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것(교사 B), 수업을 할 때나 학생 지도를 할 때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녹아져있는 것(교사 C), 영어를 지도함에 있어서 성경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교사 D)이 통합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를 종합하면, 교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내재화되어 삶 전체에 기

독인으로서의 형상이 나타남으로써 학생들의 내적 자존감을 높이도록 교수·학습 활동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이란, 기존 학문에 신앙을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의 빛으로 그 학문을 반성하고 구속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는 관점(신국원, 2013: 201)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신앙과의 통합 측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독교 영어교사들은 모두 학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교사의 역할이란 이들의 양육자 및 선교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먼저 전자에 대해 살펴보면, 이들 교사들은 학생들을 모두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보고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존재감 및 내적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이 결국 학습 동기부여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학습의 기본 출발점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사의 기독교적인] 언행·생각이 가장 밑바탕이 되고 그런 토대 속에서 [수업의] 성향, 방법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토대가 동력이 되는 거죠...(중략) 결국은 교사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토대가 되어 정체성 속에서 아이들의 내적 자존감을 높이게 되고 동기부여를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중학교는 영어수업이 100이라고 한다면 동기부여가 50% 이상인 것 같아요. 학교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교사 B>

교사로서 비전은 ‘자신감있는 애들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나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성적과 학교 서열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어려서는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런데서 좀 나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안 가지게 도와주고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귀하고, 다들 자기 재능도 있고 너무 귀한데 자기의 귀함을 모르고 소심한 애들도 너무 많아서 [제가 그 학생들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교사 C>

한편, 이들 교사들은 선교사로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또한 분명히 피력하였다. 즉, 학교는 세상적인 지식에 대한 교수·학습을 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사역 현장, 선교 현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발췌에서 보듯이, 선교 현장에 보내심 받은 선교사와 교사는 그 본질상 서로 동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영어교사들이 대학과정 중 신학 관련 기초 교과목들 이수 및 기독교세계관 관련 훈련을 받은 것 이외에도 졸업 후 개인적인 경건생활, 영성훈련 프로그램 및 기독교관련 연구모임

(예. ‘좋은교사운동’) 참여 등을 통해 기독교영어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에 충실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원 수업에서] 전 세계의 한 도시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선교 전략을 10장 쓰는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 때 여러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서 기간제 교사를 했던 것을 돌아보니까 교사라는 것이 선교적으로 얼마나 지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위치인지 다시 눈을 뜬 거예요. ...(중략).. 하나님께 고백 드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교사하면서 학교가 선교지고 교사는 선교사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휴학을 결단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교사 A>

이들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는 교사의 본보기라고 인식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동안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여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것과 같이,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침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성경말씀을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로 학생들을 양육해내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교사 A가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교사 A의 학원복음화를 위한 실천 사례

영어수업 시간 외	영어수업 시간 내
자율동아리 운영(영어성경반에서 4영리를 영어로 아주 조금씩 가르침. 철저히 Q&A식으로 진행함)	매수업에서 영어 성경구절(잠언)로 수업 시작(학생들은 받아쓰기, 뜻 추측해보기, 교사가 뜻풀이 및 경험담/예 등을 나눔)
학생들과 아침큐티 (매일 아침 40분 일찍 등교) 및 수요 학생예배(방과후) 인도	학교 성취도평가 문항에 수업시간에 나눈 성경구절(잠언)을 이용한 문항 출제
점심시간을 통한 성경양육	관계를 통한 전도(섬김형 수업 운영)
절기 이용한 전도(부활절 계란 및 복음 메시지적 카드 전교직원에게 전달, 성탄카드에 복음을 실어서 전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전달)	학습자료 선정 및 활용 시 기독교적 가치관과 복음 증거에 적절한 자료 선택
학생상담 및 적절한 기회에 학생의 동의를 구하고 전도지로 복음을 전함.	교과서 내용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접근
마음이 열린 학생들을 QT나 예배모임에 초청함. 1회성 전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움.	한 명 한 명의 존재감을 인식하며 수업 내 활동 관찰 및 기록

위의 <표3>에서 보듯이, 수업 시간에 교과서의 활용 및 추가 자료 선택, 수업 운영 방식 선정, 수업 내 학생 활동 관찰을 할 때에 기독교 관점 및 선교적 관점에 적합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는 성경공부모임 및 예배모임을 주관하며 복음 증거를 위한 더욱 적극적이고도 직접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는 모두 선교현장에 있는 선교사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학교라는 선교현장에 머무르는 한 끊임없이 선교활동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데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이들은 학생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보고 이들의 존재가치 및 달란트를 존중하여 양육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홈즈가 제시한 신앙 학문 통합 모델 중 태도적 통합의 형태로 수업과 연계된다고 판단된다. 즉, 하나님의 귀한 자녀, 선교의 대상으로 학생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들로 구성된 기독교 학습공동체에 대해 선교사로서의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태도적 통합은 홈즈가 제시한 통합의 유형 중 통합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기독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정을 이수한 기독교영어교사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Kim, 2006). 학생들은 교사들의 관심과 배려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태도적 통합은 기독교 학습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배어있는 분위기를 창조해낼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교사의 역할에 대한 태도적 통합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겠다.

2. 영어수업운영에 있어서 신앙과 가르침 통합의 양상

본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영어교사들은 영어수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신앙과 가르침 간의 통합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수업운영 및 수업활동 구성 측면, 학습자료의 활용 및 선정 측면, 평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수업운영 및 수업활동 구성

본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영어교사들은 수업을 운영해나가거나 수업활동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첫째, 수업 도입부에서 신문이나 뉴스에서 발췌한 기사 또는 이슈를 제시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수업 위명업 토론의 주제로 삼았다. 아래 교사 A의 발췌에서 보듯이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이러한 위명업 토론 과정에서 기독교적 시각과 가치관 형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방식으로 통합을 시도하고 있었다.

제 대부분의 영어수업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신문이나 뉴스를 하나 보여줘요. 영어일 수도 있고 한국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거죠.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IS 자살폭탄테러범에 대해서 제가 CNN을 들려줬어요. 피해자인 히잡을 쓴 여자가 얘기하는 것을 들려주다가 중간에 딱 멈춰놓고서는 “자, 이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핵심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서 학생들이 추측하게 하고 의식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중략).. 신기하고 재미있게도 최근의 이슈에 관해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의식을 심어주면서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런 것을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요. <교사 A>

둘째, 수준별 수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학생들의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교사 D의 발췌에서 보듯이, 수준별 수업의 분반명이 흔히 A, B, C반으로 표기되어 우열 및 등급화를 암시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분반명을 바꾸어 명명하여 대체함으로써 학생들 모두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심어주고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중학교시절부터 등급 지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요. 특목고를 가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구분되는데, 영어 성적을 가지고도 서로 많이 놀리기도 해요. 그래서 수준별 분반 이름이 A, B, C반이었는데, 제가 이름을 좀 바꾸자고 제안해서 America, Britain, Canada로 바꾸었어요. 엑셀작업해서 단 몇 초 만에 애들 반이름 다 바꾸어 놓았어요. 애들도 서로 부를 때 너 C반이나 그렇게 부르지 않고 Canada나라고 불러요. <교사 D>

셋째, 수업활동과 관련해서 이들 교사들은 짝활동, 그룹활동 등의 형태로 동영상 만들기, 영어노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게임하기 등을 통해 참여와 경험, 협동을 강조하는 활동들로 수업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고 학업성취감 및 자기효능감을 이루도록 한다

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짝활동이나 그룹활동의 형태로 협동 학습을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가치를 인식하여 이를 활용한다는 면에서 기독교적 원리를 수업에서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교사 B 발췌 참조).

가능한 한 그룹활동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개인적인 영어실력이나 성취도가 높으면 개별적인 평가가 활동으로 이끌텐데, 낮다보니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 도와주도록 scaffolding을 유도했어요. 가령, 한 차시 해당 페이지에 12문장이면 그룹에 4문장 주고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구요. 독해를 잘 못하니 시각적으로 표현하도록 했죠. 이유는 못하는 애들도 그림 그릴 수는 있으니까.... 서로 이해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붙여놓기도 했어요. <교사 B>

넷째, 영어교수법으로 제시된 다양한 방법들 중 기독교적 원리에 부합하는 방법을 시도하려는 노력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교사 D는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과 달란트를 수업에 녹이고자 다중지능이론을 접목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 개개인을 하나님이 지으신 고유한 존재들로 보고 이들에게 부여하신 달란트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여 이를 수업에 반영하고자 한다는 면에서 신앙과 가르침 간 통합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독교세계관에 의한 영어교수법을 조명한 연구(김영숙, 2005; 이지연, 2014)에서도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한 교수·학습은 하나님이 학생들에게 부여하신 능력 및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교수·학습방법이라 제시되어 있다.

저는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해보고 있어요. 워드 서치 퍼즐, 타이포그래피, 영어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등등 학생마다 각자의 재능에 적합하게 학습할 수 있게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줘요. ...(중략).. 첫 해 가르칠 때 어떤 아이가 말썹을 부렸는데 그림을 잘 그렸어요. 전문가처럼 만화를 너무 잘 그렸는데, 그래서 만화를 수업과 연결시켜 문장을 주고 그 자신의 답을 그림이나 만화로 그리게 하고 칠판에 나와서도 그려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문장으로 표현하게 하구요. <교사 D>

마지막으로, 이들 기독교영어교사들은 교사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 수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A의 경우 수업 진행 시 교사의 일방적 수업형태가 아닌 쌍방향적 질문과 대답 식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을 수업의 주체로 참여시키고 있었다. 즉, 수업을 할 때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질문 또는 과업을 던짐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과업을 완수하도록 하였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힌트를 제시해주어서 학생들의 사고과정 및 과업해결과정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교사 D의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는 질문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교사가 학생들 개개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전도 대상자로서의 학생들이 수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수업 안에 내재되어있는 기독교 원리를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교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저는 personalization을 가장 좋아해요. 배운 표현을 활용해서 자신과 관련지어서 글을 쓰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돼요. 가령 2학년 영어에서 ‘What’s your plan for this year? I hope to...’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실제 자신의 계획을 써보라고 하면 학생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관심 등을 표현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자신 스스로 쓴 것은 잘 기억하고, 교사로서도 학생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개인적인 질문을 더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남자에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대해서 쓰는데 게임 랭킹이 뭐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교사 D>

(2) 학습자료의 활용 및 선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업의 전반적 운영 및 수업 활동 구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및 추가적인 교수·학습자료를 선택하는 차원에서도 이들 기독교영어교사들은 신앙과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아래 발췌에서 보듯이 교사 A의 경우 매 수업 시간에 영어로 된 속담에 대한 학습을 시키는데 이 때 일반적인 속담 외에 성경구절(잠언 말씀)을 포함함으로써 이를 통해 성경을 가르치는 통합을 시도하고 있었고, 교사 B의 경우 교과서 내에 다루는 부분의 주제가 기독교와 연관될 수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활용하며 기독교 가치관 교육의 기회로 삼고 있었다.

매 수업에 속담 하나씩을 썼어요. 속담을 시험에 낸다고 하구요. 그 속담의 대부분은 잠언에서 또는 다른 성경구절에서 가져왔어요. 70-80%는 성경에서, 20-30% 정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던가 이런 속담으로 하구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성경을 접하게, 그리고 소감을 쓰고 아이들에게 의미를 물어봐요. 그리고 의미를 아이들이 맞추면 맞추고, 못 맞추면 제가 알려주고, 관련된 사례, 경험, 제 스토리를 들려줘요. 대부분이 성경구절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교사 A>

미국이나 영국 역사가 나올 때, 기독교적인 내용이 나올 때 언급하고 다뤄요. PPT 자료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내용면에서 비전이나 꿈이 나왔을 때, 기독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못하지만 꿈과 소명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가치있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신 소명이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라도 다루려고 해요. <교사 B>

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를 활용할 때에 교과서 내용 중에 배어 있는 가치관 및 기독교 원리를 고려하여 이를 기독교 가치관 교육에 활용하고 있었다. 즉, 교과서 내용 중 반기독교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이와 달리 성경적인 내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치관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돕도록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었다.

영어 지문 같은 것을 읽다보면 아무래도 문화적 배경이 되는 게 서양이나 기독교 문화 배경이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알아야 단어를 이해하거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럴 때는 제가 영어교사이기 때문에 좀 더 기독교적인 부분을 친숙하게 설명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중략). 그러면 애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거지만 사실은 거기에 들어있는 기독교적인 것 배울 수 있는거죠.<교사 C>

(3) 평가

평가에 있어서 이들 기독교영어교사들은 단순히 영어기술과 관련된 지적능력을 교사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 외에도 동료 평가, 수업관찰을 통한 대안적 평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교사 A의 경우 매 수업 시간에 심층 관찰 대상을 구체적으로 몇 명 정해놓고 그 학생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수업 활동을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평가에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 C의 경우 전통적인 교사 평가뿐만 아니라 동료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도 교사 자신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인격체로서 존재가치를 지니며 학습과 평가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가 과정에 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원리에 기반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생기부(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이 중요해요. 생기부를 형식상으로만 마감날짜에 쓰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룹활동하는 것을 관찰해서 기록할거다 라고 말해줘요. 한 시간에 두세 명 정도 집중적으로 관찰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관찰하면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상호작용을 해야 해요.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 지 등 평상시에 생활기록부를 누적해서 써주는 거

조. 생기부에 써주는 거니까 지적영역을 벗어나서 다양한 것을 써주는 거죠. 실제 에피소드까지 써줄 수 있어요. <교사 A>

생기부를 쓸 때 저는 제가 본거랑 친구들이 본거를 조합해서 써줘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른 과목시간에도 그 애들을 보고 있잖아요. 같이 활동을 하니깐... 그래서 저는 생기부를 쓸 때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애들한테 롤링 페이퍼 식으로 다 받아요. 네가 생각하는 저 아이의 활동과 장점만 쓰라고 해요. 단점은 절대 쓰지 말고 저 아이에 대해서 꼭 칭찬해야 할 것 3가지를 쓰라고 해요. ..(중략) 그러면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요. 예를 들면 “애는 급식할 때 1년 내내 도와줬어요”, “애는 운동할 때 다른 애들을 잘 챙겨요” 이런거요....(중략)... 교사이다보니깐 오히려 고정관념이 제일 강할 수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한 명 한 명이 다 귀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교사 C>

이는 교사를 평가자로, 학습자를 피평가자로 보는 수직적 관계로 접근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동등한 존재로서의 가치 및 인격을 존중하려는 견해에 기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단지 교사에 의한 평가, 지필고사에 의한 평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동료들의 평가, 평소 수업관찰을 통한 평가를 통해 다각도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온전한 인격체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영어교사들의 수업에서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 양상은 수업운영 및 수업활동 구성 측면, 학습자료의 활용 및 선정 측면, 평가 측면 등에서 발견되었다. 각 측면의 내용을 앞서 2장에서 논의한 레전트 대학의 통합 모델에 비추어 분석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다.

<표4> 수업 운영 사례들의 통합 유형 분석

구분	대표 사례	통합 유형								
		1	2	3	4	5	6	7	8	9
수업운영 및 수업활동	영어 수업 도입부를 위한 (영어)시사 뉴스 선정하여 제시하고 토론									●
	수준별 분반의 명명을 달리하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등한 존재가치 고취		●							
	수업 내에서 짝활동, 그룹활동 등을 통해 각자의 달란트 활용토록 운영						●			
	각자의 달란트를 고려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 적합한 영어교수법 활용						●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수업활동 구성 Q&A방식으로 함으로써 수업에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 유도						●			●

구분	대표 사례	통합 유형								
		1	2	3	4	5	6	7	8	9
학습자료의 활용 및 선택	영어속담(일반 속담 및 성경구절로 구성)을 통해 성경말씀에 대한 가르침				●					
	교재에 기독교적인 내용일 때에 이에 대해 나눔			●						
	교재 내의 주제와 연관된 기독교 원리를 소개		●							
평가	교사평가 외에 동료평가 포함						●			
	수업관찰을 통한 평가 실시						●			

* 1: 학생주도적 접근, 2: 즉흥적 접근, 3: 신앙 나눔 접근, 4: 교재적 접근, 5: 기독교 전문가 접근, 6: 경험적 접근, 7: 어휘적 접근, 8: 기관적 접근, 9: 도덕적 접근

위의 <표4>에서 보듯이, 이들 교사들은 수업 운영에 있어서 즉흥적 접근, 신앙 나눔 접근, 교재적 접근, 경험적 접근, 도덕적 접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과 가르침 간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이 선교라는 목적을 위해 대상과 상황에 따라 선교의 방법을 달리 해야 하듯이 선교지로서의 교육 현장에서 이들 교사들도 수업 내의 여러 국면들, 수업 대상자, 수업 목표, 교사의 개인적인 교육철학 및 신앙배경 등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4>에서도 보듯이 이들 교사들과의 면담 내용에서는 학생 주도적 접근, 기독교 전문가 접근, 어휘적 접근, 기관적 접근 등의 통합 사례들은 발견되지 못했다. 만약 이것들이 면담 내용에서만 누락된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도 실시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아마도 이들 기독교영어교사들이 근무하는 곳이 종교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신앙과의 통합을 실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이 대학입시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시험준비 위주로 수업을 운영할 것에 대한 학습자들 및 학교당국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므로 정해진 수업 시간을 활용하는 데에도 현실적 제약이 작용했을 것이다.

3. 기독교영어교사들의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독교영어교사들이 학교 수업 현장에서 신앙과 가르침을 통

합하기 위해서는 수업 외적인 차원에서의 노력 및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면담 결과 이들 기독교영어교사들은 이와 같은 노력을 다양한 차원에서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교사 개인의 영성을 굳건히 하기 위해 경건훈련에 힘쓰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처음에는 사역자, 선교사로서 교단에 섰다 하더라도 교육 현장의 현실 및 제약, 요구에 부딪힘에 따라 초창기의 결단이 퇴색되어질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아래 발췌에서 보듯이, 기독교영어교사들은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묵상을 통한 지속적인 영성훈련을 통해 학교 현장 내의 다양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의 원천으로 삼고 있었다.

계속해서 성령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려고 노력해요. 잠을 줄여서라도 새벽에 기도해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중략)..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거든요. <교사 A>

이러한 경건생활을 바탕으로 이들 교사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자기부인과 헌신, 섬김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에 대한 이들의 인식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통합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며, 삶 안에서 배려, 헌신, 본보기 등의 양상으로 실현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이기도 하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교과를 가르침과 동시에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고 그를 통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이 유지되어야 되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부인, 헌신, 섬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니?' 뭐... 이런 게 입학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렇게 입시 때 성경교사를 보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4년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제자들 발씻어주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데, 내가 그걸 다 못 닦아도 나도 좀 닦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겨주는 교사가 되어야하지 않겠나.. 그게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인 거 같아요. <교사 C>

둘째, 교사로서 자기 계발을 위한 자기반성(성찰) 활동이 주목할 만하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기반성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지 잘 가르쳐야 한다는 책무 뿐 아니라 기독교사로서의 정체성 및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기독교사들에게 있어서 자기반성 활동은 기독교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교사 D 발췌 참조). 이는 아래 교사 B의 발췌에서 보듯이 영어교육에 임하는 교사의 영어에 대한 태도 및 수업철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묵상을 하면 reflection을 많이 하니깐 저의 태도도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성찰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교육실습이나 영어습득론 수업 때 성찰일지를 썼는데, 지금도 가끔은 [저 스스로] 성찰일지를 써요. 학생들 한 말 중 기억 남는 거, 수업에서 기억에 남는 것 등으로 해서... <교사 D>

[기독교영어교사는] 영어에 대하여 일반 사람과는 다른 관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촘스키의 이론을 보면 우리 안에 LAD(언어습득장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언어적 기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부할 수 없는 근본적인 언어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식사과정을 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 안에 잠재능력이 있는데 교사가 이것을 펼쳐보이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B>

셋째,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 생활 및 자기반성 외에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기독교 관련 지식 및 신앙의 기반이 성숙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들과의 면담에서 나타나듯이 ‘좋은교사운동본부’에서 활동하거나 그 곳에서 발간되는 책자들을 활용하는 것은 이들의 기독교사로서의 활동에 매우 유용한 지침이 되고 있다. 또한, 소속한 학교 내의 신우회 또는 2년마다 개최되는 ‘기독교사대회’에도 참여하면서 기독교사들의 활동에 대한 견지 및 안목을 넓히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자신을 새롭게 조망하며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관하여 운영되는 정기적 영성훈련모임(예, 크리스천 리더십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기독교사로서의 소양을 발달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앙과 가르침을 통합하기 위해서 기독교영어교사들은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묵상을 통해 자기부인·헌신·섬김을 내면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기반성을 통한 전문성 함양을 도모하고 영성훈련 프로그램 및 모임에 참여하여 기독교에 대한 지식 및 신앙의 토대를 굳건히 해나가고 있었다. 이는 기독교적 가치관의 토대 위에 삶 속에서 기독교영어교사로서의 차별성을 드러냄으로써 삶을 통한 전도, 삶 속에서의 선교를 하는 것이 선교의 방법으로서 가장 영향력 있으며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실현하는 본질이라는 공통된 견해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영어교사로서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영어교과 내에 신앙을 통합하고자 하는 차별화된 노력은 기독교영어교사로서의 사명감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 진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독교영어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기독교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신앙과 가르침을 통합하고자 시도하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알아보려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1) 신앙과의 통합 및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독교영어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2) 영어수업에 있어서 신앙과의 통합 양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3) 기독교영어교사들이 신앙과 가르침 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였다. 이를 위해 현재 국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영어교사들 4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들과의 개별적인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면담 자료는 질적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하여 통합의 양상들을 유형화하였고 이를 기존의 신앙과 학문 간의 통합 모델을 적용하여 통합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신앙과 가르침 간의 통합을 교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를 구하고 삶 전체에서 기독교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영어교사들은 학생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보고 이들의 존재 가치 및 달란트를 존중하여 양육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 이와 같은 인식은 흠즈가 제시한 모델 중 기독교적 학습 공동체의 특성인 관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태도적 통합과 유사한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기독교영어교사들은 수업운영 및 수업활동 구성, 학습자료의 활용 및 선택, 평가의

측면에 있어서 신앙과 가르침을 통합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즉, 이들은 영어수업에서 기독교적 관점에 적합한 교수법, 수업활동, 학습자료, 평가방법(동료평가 및 관찰평가 등의 대안평가)을 적용시키며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써 수업에서 학생들이 기독교 원리, 기독교 가치관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내적 자존감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들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통합 양상을 레전트 대학의 통합 모델에 따라 그 유형을 분석한 결과, 즉흥적 접근, 신앙 나눔 접근, 교재적 접근, 경험적 접근, 도덕적 접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이들 기독교영어교사들은 개인적인 경건훈련, 영성훈련 프로그램 및 기독교사 공동체모임 참여, 자기반성을 통한 전문성 개발이라는 방법들을 통해 일반 교사들과는 차별화된 노력을 기울이며 기독교영어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근거할 때, 영어수업에서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은 수업의 구성, 교수·학습의 실행,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업의 전 범위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다. 수업의 구성 및 질은 학습자들의 학습능력(teachability)이나 책무성(accountability) 뿐 아니라 그 교과에 대한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을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를 위해 기독교영어교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의미있는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 통합을 위한 모든 노력들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늘 상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을 위해서 기독교영어교사들 개인의 신앙 수준과 노력으로만 임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사들간의 공동체적 연대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시도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목적과 학습의 동기가 대학진학, 취업, 성공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실에 대해 기독교영어교사 공동체 간에 진지한 논의가 요구된다. 스미스와 카빌이 제시했듯이, 기독교영어교사들의 소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온전히 세우는데 영어교육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영어학습의 목적과 동기를 환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Smith and Carvill, 2000). 이런 점에서 기독교사모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기독교영어교사들은 학원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도전받을 필요성이 있다.

종교적으로 중립이 요구되는 공립학교에서도 다양한 차원에서의 통합이 가능할 수 있음을 고려해볼 때, 기독교교육을 표면화시키고 있는 기독교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통합의 양상들이 더욱 선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립학교의 기독교영어교사들과 기독교학교의 기독교영어교사들이 서로 연대하여 기독교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의 방법을 공유하고 주어진 현실 내에서 새로운 통합의 방법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힌 기독교영어교사들의 기독교 신앙의 통합의 양상은 비단 영어교과에만 국한되는 양상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타 교과를 가르치는 기독교사들의 수업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통합의 양상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타 교과에서의 양상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기독교영어교사 양성과정에서는 교과수업과 신앙의 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의 모색과 훈련 지도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어교육 현장에서는 수업 교재(교과서)가 정해져서 주어진다든 현실을 감안할 때, 예비기독교영어교사들이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이를 재구성하는 훈련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 운영 및 수업활동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통합의 유형이 나타난 반면, 학생 주도적 접근, 어휘적 접근, 기관적 접근 등 활용되지 않는 통합 유형들도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기독교영어교사 양성과정 내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유형들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기독교영어교사 양성과정에서 통합을 위한 훈련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4명의 기독교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연구결과가 기독교영어교사의 통합에 대한 인식이나 수업양상에 있어 대표성을 띠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례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영어교사들은 동일한 기독교대학 출신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한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현장에 있는 다양한 기독교영어교사들의 신앙 통합의 양상을 대변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향후에는 국공립학교 뿐 아니라 일반 사립학교 및 기독교 대안학교 등의 기독교영어교사들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많은 수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연구를 함으로써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의 일반적 양상을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연구 방법 면에서도 면담법 이외에 수업 관찰, 학생들 및 동

료 교사들과의 면담도 포함시킴으로써 신앙과 통합의 양상을 보다 다각적이고 객관화된 측면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영숙 (2005).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영어교수법 조명.” 『총신대논총』. 24. 254-283.
- 신국원 (2013). “기독교 학문의 비전: 가능성과 필요성.” 『신앙과 학문』. 18(4). 189-212.
- 이은실 (2010). “대학수업에서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 학생에세이 사례 분석.” 『신앙과 학문』. 15(2). 123-151.
- 이지연 (2014). “기독교 관점에서 영어교수법에 대한 예비기독교영어로교사들의 인식.” 『기독교와 어문학』. 11(1). 93-122.
- Bogdan, R. C., and Biklen, S. K. (2003).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4th ed.). Boston: Allyn & Bacon.
- Burton, L., and Nwosu, C. (2003). “Student Perceptions of the Integration of Faith, Learning, and Practice in an Educational Methods Course.” *Journal of Research on Christian Education*. 12(2). 101-135.
- Edlin, R. J. (1999).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학분과(역) (2004). 『기독교교육의 기초』. 서울: 그리스.
- Hasker, W. (1992). “Faith-Learning Integration: An Overview.” *Christian Scholar’s Review*. 21(3). 234-248.
- Holmes, A. (1987). *The Idea of a Christian College*. Grand Rapids, MI: Eerdmans.
- Johnston, B. (2003). *Values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 Kim, Y. (2006). “Christian English Teachers’ Perception and Practices of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Chongshin Review*. 11. 98-123.
- Lessard-Clouston, M. (2013). “Faith and Learning Integration in ESL/EFL Instruction: A Preliminary Study in America and Indonesia.” in Wong, M., Kristiansson, C and Dörnyei, Z. (Eds.) (2013). *Christian Faith and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pp. 115-135). New York: Routledge.
- Nwosu, C. (1999).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in Christian Higher Education: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ers and Classroom Implement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ndrew University.
- Scarlato, M. C., and Kohm, L. M. (1999). “Integrating Religion, Faith, and Morality in Traditional Law School Courses.” <http://regentuniversityonline.com/>

acad/schlaw/student_life/studentorgs/lawreview/docs/issues/v11n1/11RegentULR
ev49.pdf. (검색일 2015.4.4.)

Smith, D. (2000). "Faith and Method in Foreign Language Pedagogy." *Journal of Christianity and Foreign Languages*. 1(1). 7-25.

_____ (2008). "On Viewing Learners as Spiritual Beings: Implications for
Language Educators." *Journal of Christianity and Foreign Languages*. 9. 34-48.

Smith, D., and Cavill, B. (2000). *The Gift of the Stranger: Faith, Hospitality,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Grand Rapids. MI: Eerdmans.

Smith, D., Sullivan, J., and Shortt, J. (Eds.). (2007). *Teaching Spiritually Engaged
Reading*. Nottingham. UK: The Stapleford Centre.

Snow, D. (2001). *English Teaching as Christian Mission: An Applied Theology*.
Scottsdale, PA: Herald Press.

Wong, M., Kristiansson, C., and Dörnyei, Z. (Eds.). (2013). *Christian Faith and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Research on the Interrelationship of
Religion and ELT*. New York: Routledge.

부록

〈기독교영어교사 심층 면담 시 질문한 내용들〉

1. 개인 정보

- ① 나이/현 학교/근무경력/ 최초 임용년도/현 학교에서의 직분(담임, 연구부, 학생부 등)
- ② 임용전 학생들 가르친 경력(기간제, 인턴십, 기타)
- ③ 교육경력(전공/ 대학원)/ 교사연수 등
- ④ 신앙생활/출석교회 및 봉사부서/교사 개인의 영성훈련

2. 교직 관련

- ① 교사지원동기와 소명의식(교사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 대해
- ② 교사로서의 비전/ 교사의 역할/기독교영어교사로서 공립학교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정체성에 대해
- ③ 본인의 교직생활에 도움주는 교내/외 네트워크(예; 교사동아리)이나 교사단체 활동 여부

3. 교실수업 관련

- ① 본인이 교실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수방법과 그 이유
- ② 자신의 신앙, 기독교세계관이 실제 교실수업에서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하는지/통합의 정의/ 통합을 위한 교수학습 관련 방법이나 노력 등
- ③ 학부(기독교대학)에서 배운 것들이 공립학교현장에서 기독교 정체성과 수업을 통합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 ④ 개인의 기독교 신앙과 수업활동/내용/학교운영 등 전반에 있어서 충돌이나 갈등을 겪었던 경험

Abstract

Integration of Faith and Teaching in English Classroom: A Case Study with Christian English Teachers in Public Schools

Young-Sook Kim (Chongshin University)

Jyi-yeon Yi (Chongshin University)

Christian English teachers working in public schools can be called as missionaries to witness gospel in response to God's calling through teaching and caring students in accordance with biblical truth. Over the last decades, Christian English educators have been working actively to apply biblical principles to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papers are being published on how they integrate their Christian faith and the discipline of English education.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how the Christian faith is integrated and realized by Christian English teachers in their day-to-day classroom practices. Four Christian English teachers teaching in public schools(two in middle school and two in high school) were interviewed to collect qualitative and descriptive data that conveyed teachers' perception and pedagogical practices. The data analyzed revealed that they considered themselves as nurturers of God's children and missionaries, which could be categorized as attitudinal integration according to Holmes'(1987) model. It was also found that they tried to integrate their faith in class management and teaching method, selection and use of teaching materials, and assessment. The integration was realized in various types according to the integration model suggested by Regent University. Furthermore, the results show that the teachers make personal and spiritual efforts to respond to God's calling as missionaries in school and participate at Christian teachers' affiliation to promote faith integration. It is hop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arouse a greater interest in exploring pedagogical aspects of English teacher's integration of their Christian

faith in English teaching. Future directions regarding curriculum development in Christian English teacher education program and research issues were suggested.

Key Words: integration of faith and teaching, Christian English teachers, English teaching